메르스

대응 과정

미디어,의사소통

환자현황	주요 현황	대외,미디어 소통	대내 소통
5.20 1번			
			5.26 운영회의 5.29 긴급대책회의 시작
5.30 입원	5.31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 사과	**5.30 네이버 카페 명지병원환자 관련 글-대응**	
5.31 18번		6.02 메르스 관련 악성 게시글-경찰청 모니터 요청	
		6.03 고양시 메르스 확진 사실 무근 게시물 제작	6.03 고양시 메르스 확진 사실 무근 원내 게시
6.06 64번	6.04 박원순 시장 삼성병원 35번환자	고양서 고소장 제출-일산아지매 관련글 삭제	6.04 메르스 선별진료소 설치
	6.07 정부 환자 발생,경유병원 공개		6.05 본원은 메르스 발생병원이 아닙니다. 현수막
		6.08 조선일보 메르스격리자 지원-김현수교수 보도	
	6.09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6.09 서울경제 이사장님 인터뷰 '메르스 3무 바이러스'	
		6.10 KBS <뉴스9> '메르스 이겨낸 사람들'	
		6.10 KBS <뉴스9> '폐렴환자 4만여명 조사' 박상준교수	**6.10 미화부,보안,외래 메르스 교육 '격리병상'**
		6.11 KBS <뉴스9> '오락가락 판정이유?' 박상준교수	
		6.11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심리지원' 김현수교수	
		6.11 SBS <모닝와이드> '자가격리 어떻게?' 김현수교수	
6.12 138번	6.12 삼성서울병원장 대국민사과	6.12 KBS <뉴스9> '폐렴환자 전수조사,곳곳 구멍' 박상준교수	6.13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대형 현수막 게시
			6.15 환자 대상 SMS 발송 '안심병원+환자발생없음'
6.18 166번		6.16 MBC <뉴스투데이> '국민안심병원 운영 시작'	6.18 출입구 열측정-스티커 부착
6.23 퇴원		6.19 중앙일보 '기본만 지키면 메르스 잡는다' 이사장님	

환자현황	주요 현황	대외,미디어 소통	대내 소통
6.26 182번		6.20 MBC <뉴스데스크> '환자 절반으로 뚝'	6.22 메르스 '그린리본' 게시판 설치
	6.23 한양대 구리 병원 응급실 패쇄		6.24 메르스 퇴치 및 응원 플레시몹-로비
	6.24 건국대병원 패쇄		**6.24 메릇 퇴치 '속앓이 미팅' 시작**
			6.24 메르스 대응 전체 교수 회의
		6.26 조선일보 '메르스와 사투 의료진에 응원'	6.26 관련 직원 격려 오찬,미화부,시설,보안,총무
		6.26 우먼센스 7월호 '메르스 증상은?' 민주원교수	
		7.01 조선일보 '메르스 5전 전승 여자 이순신' 보도	**7.01 전직원 대상 문자 발송-공감과 소통을 위해 공개**
7.05 186번		7.01 조선일보 사설 '의사,간호사들이 진짜 영웅'	
		7.01 조선일보 동영상	
		7.01 TV조선 '의사 간호사들이 진짜 영웅이다'	
		7.01 조선일보 카드뉴스 '1년 전부터 기다려왔다'	
		7.02 중앙일보 온라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록'	
		7.03 청년의사 온라인 보도 '메르스 매뉴얼'	
		7.03 EBS교육대토론 대응우수사례	

메르스 상륙 1년전, 이 병원은 '메르스팀'을 꾸렸다

환자 전원 완치, 의료진 감염 0명… 고양 명지병원 이꽃실 교수팀

지난달 하순 국내에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연이어 추가 감염자가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 서남의대 명지병원 감염내과 이꽃실(44) 교수는 음압격리병상 의료진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우리 병원이 국가 지정 격리병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조만간 올 것이다. 지금까지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된다. 음압병실에 들어가기 싫으면 지금 말하라"고 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명지병원의 메르스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결과는 5전 전승(全勝). 다섯 명의 메르스 환자를 모두 완치시킨 후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의료진 감염도 제로(0)였다. 그 비결은 이꽃실 교수팀이 1년 전부터 메르스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완벽하게 대응 체제를 갖춘 데 있었다. 그녀는 메르스 퇴치의 '여자 이순신'이었다.

명지병원 메르스 치료 현황
- 메르스 확진 환자 5명 모두 완치
- 의사·간호사 등 메르스 전담 의료진 20명 운영
- 의료진 감염 제로
-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상 6개 운영
- 10차례 매뉴얼 회의와 가상 모의훈련
- 지난해 6월 메르스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팀 구성
- 메르스 환자 입퇴원 처리하는 신속 대응팀 운영
- 형광물질로 방호복 착·탈복 준수 평가

"메르스 언젠간 한국에 온다" 의료진·행정직 80여명 뭉쳐 1분 단위 대응 시나리오 짜

바이러스 묻는 방호복엔 형광물질 묻혀 착·탈복 훈련

전담 의료진, 환자 생기자 일반 환자 안보고 병원 숙식

○메르스는 반드시 온다

지난해 4~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대거 나오고, 치사율이 40%를 웃돌자, 이 교수팀은 메르스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팀을 6월에 발족시켰다.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다. 이 교수는 "국가 간 교류가 빈번한 상황에서 해외 신종 전염병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오고, 국내에 오면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는 우리 병원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감염관리 간호사, 행정직원 등 80여명이 두 달 동안 분야별로 수차례 회의를 가지며, 메르스 환자 입원 시 격리병상과 의료진을 어떻게 운영할지 매뉴얼을 짰다.

이왕준(외과 전문의) 이사장의 아이디어에 따라, 외래나 응급실로 갑자기 메르스 환자가 들이닥쳤을 때를 대비, 원내 오염과 추가 전염을 막는 신속 대응팀(CDRT)도 출범시켰다. 의사, 감염관리 간호사 4~5인을 한 팀으로, 주간조와 야간조가 구성됐다. 메르스 환자를 음압병실까지 신속히 격리 입원시키기 위해 환자 이동과 의료진 출동 동선을 1분 단위로 짠 세부 실행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9~10월에는 방호복을 입고 벗는 훈련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의료진 감염은 주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할 때 바이러스가 방호복에 묻고, 이를 벗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맨살에 묻어 일어난다. 이에 이 교수팀은 방호복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착·탈복 연습을 시켰다. 방호복을 벗은 후 형광카메라를 비춰서 조금이라도 형광물질이 살에 묻어 있으면, 제대로 벗을 때까지 훈련했다.

○메르스가 마침내 왔다

지난 5월 20일 국내에 메르스 1번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이 교수팀은 의료진을 모아 다시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방호복 착·탈복 훈련을 또 했다. 메르스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재점검하고, 용량까지 확인했다. 마침내 5월 30일,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12번 환자(여·49)가 명지병원으로 온다는 연락이 왔다. 신속대응팀원이 평택으로 달려가 방호복을 입고 앰뷸런스에 동승했다. 구급차가 명지병원에 도착하기 1㎞ 전, 이 병원 건강검진 차량이 음압병동 건물 출입구로 이동했다.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 들어온다는 것을 일반 환자들이 보고 불안해할까봐 위장막을 친 것이다. 사전에 훈련한 시나리오다. 환자가 도착하자 방호복을 입고 대기하던 의료진이 미리 잡아놓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환자를 음압병실에 신속히 입원시켰다. 이어 소독대응팀이 그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혹시나 묻었을 바이러스를 바로 사멸 처리했다.

메르스 환자가 속속 음압병실에 입원하면서, 간호부장을 포함한 의료진 약 20명은 처음부터 병동에서 숙식했다. 이 교수는 3주간 머물며 환자 치료를 진두지휘했다. 메르스 환자 진료팀은 일반 환자를 아예 보지 않도록 했다. 이들은 음압병실 옆 일반병실을 여관방 삼아 배달되는 병원 밥을 먹으며 환자와 동고동락했다. 간호사들은 방호복을 입고, 메르스 환자들의 머리도 감겨주었다. 이 교수는 "메르스 환자를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폐렴이 확 번지면 긴장이 됐다"며 "해외 논문을 보고 미리 연구해 놓은 치료법대로 처치를 하니 환자들의 병세가 점차 좋아졌다"고 말했다. 비로소 지난주에 다섯 번째 환자가 병원을 나서면서 "메르스 명지대첩"은 마무리됐다. 명지병원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시 우리나라 병원 중 가장 먼저 신종플루 대응센터를 차렸고, 이 교수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만5000여명의 신종플루 환자를 선제적으로 진료한 바 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메르스 확진 환자 5명을 전부 완치시킨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감염내과 이꽃실(맨 왼쪽) 교수와 메르스 의료진이 30일 음압 병실 앞에서 웃고 있다. 이 병원은 1년 전부터 메르스 유입에 대비해 대응 체제를 갖췄고,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 한 명 없이 환자를 모두 완치시켰다.

리빙포인트
danmee.chosun.com/livingpoint

새 구두가 발에 꽉 낄 땐

새로 산 구두가 발에 꽉 낄 때는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구두의 안쪽을 닦으면 가죽이 팽창해 발에 맞게 된다.

<교훈과 개선점>

○ 5.30 확진 환자 입원 시 내부 직원의 소통과 공감 미흡으로 외부 소문 발생 및 환자 급감

사전에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전 직원 소통으로 정보 통제 필요함.